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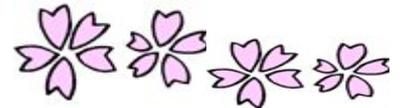
발행 : (공사)사이타마관광국제협회 (STIB)
국제교류센터



사이타마시의 꽃 명소

~ 초봄에서 초여름 ~

꽃과 접하며 천천히 걸어보지 않으실래요?



꽃과 녹음의 사이타마시

사이타마시내에는 꽃의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.

「시의 꽃과 나무 · 벚꽃」은 「벚꽃의 명소 백선」으로 뽑히는 오미야공원, 요노공원이 유명합니다. 큰 공원이나 가로수길뿐만 아니라 근처의 학교, 작은 공원, 신사, 절, 정원등 가까운 곳에서 벚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. 「나의 벚꽃」을 찾아서 매년 즐기는 것도 즐기는 방법중의 하나가 아닐까요?

39호에서는 벚꽃뿐만 아니라 매화나무·앵초·장미·자양화·수련·왕원추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. 는 벚꽃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.

꽃의 명소와 산책로



입춘 후의 꽃을 즐길 수 있는 매화나무 숲

오미야제2공원 2월하순~3월상순

백매, 홍매, 수양매 등 여러 가지 종류나 이름이 있는 520 그루의 매화나무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사이타마시내에서는 유일하게 큰 매화나무 숲입니다. 꽃시즌에는「매실축제」가 개최되고 노점이나 전국 도자기의 가게가 열립니다. 비싼 것부터 싼 것까지 매화나무와 함께 일본의 도자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매화 다음에 피는 벚꽃도 크게 자라고 있어 넓은 공원에서 천천히 산책하거나 시트를 펼치고 앉아 벚꽃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.

< JR 오미야역 동쪽출구에서 도보 30분, 도부노다센「오미야공원역」에서 도보 20분, 무료 주차장 있음 >



되살아난 왕원추리

우라와니시고등학교 뒤, 미누마용수 서쪽 가장자리 6월하순~7월상순

시민에 의한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되살아난 백합과 비슷한 주황색의 꽃 왕원추리를 볼 수 있습니다.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까지 우라와니시고등학교 뒤쪽부터 2km의 제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벚꽃철에도 볼 만한 곳이 많습니다. 히카와신사까지 5km, 길을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800 그루정도의 수령 30년의 큰 벚꽃 가로수는 찾아오는 분들을 감동시킵니다. 유채꽃과 벚꽃 그리고 역사있는 미누마논과 신토신의 고층빌딩군.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「사이타마시」를 느낄 수 있습니다. 하이킹 기분으로 걸거나 자전거로 천천히 달리는 것도 권해드립니다.

< JR 요노역 동쪽 출구에서 도보 25분, 신토신역에서 버스 우라와니시고등학교 하차 도보 3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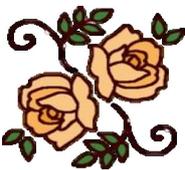


시가지의 산책로에서 피는 꽃 자양화, 산딸나무

벧소누마공원에서 무사시우라와역 자양화길 4월~6월

수변의「벧소누마공원」에서 무사시우라와역까지의 시가지에 있는 2 km 산책로. 가벼운 기분으로 걸어보지 않으실래요? 봄의 벚꽃, 초여름의 산딸나무, 장마철의 자양화등 3가지의 꽃가로수가 이어집니다. 차도보다 한단 높은 산책로는 어린아이를 동반해도 안심입니다. 사이타마시민이 오랫동안 친숙하게 지내온「벧소누마공원」도 볼 만한 곳이 많습니다. 시내에 있지만 수변이나 큰 상록수들이 다른 공원과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.

< J R 나카우라와역 도보 1분 무사시우라와역 도보 1분 >



요노공원내의 장미원

170 가지, 3,000 그루의 장미 5월~6월상순 / 9월중순~10월하순

1877 년 개원된 역사있는 공원안에 장미원이 있습니다. 1년에 2 번, 봄과 가을에 핍니다. 5월의 제3 주말에는 장미의 묘목판매와 노점상이 나오는 「장미축제」가 열립니다. 그리고 옛부터 벚꽃의 명소로도 유명해서 「사이타마, 벚꽃백선」으로도 뽑혔습니다.

< J R 요노혼마치역에서 도보 10분 >



일본의 정서가 풍부한 장소 이와쓰키성지공원

창포못의 수련· 창포 5월~

이와쓰키성의 옛모습이 연상되는 사적있는 공원입니다. 5월 수변의 꽃「수련· 창포」를 창포못에 걸쳐 있는 주칠을 한 야쯔하시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600그루의 벚꽃이 피는 명소이기도 하고 주칠을 한 다리와 벚꽃은 일본적인 정서가 풍부합니다. 「조시공원 벚꽃축제」등 많은 행사가 열립니다. < 오미야역에서 도부노다센 이와쓰키역 도보 23분 시내 커뮤니티버스 있음 >





다지마가하라 앵초 자생지

사이타마시의 꽃「앵초」150 만그루 4 월 중순

아라카와 하천부지에 만들어진 물과 녹음이 풍부한 공원. 4 월중순에는 나라의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150 만그루의 앵초를 볼 수 있습니다 .

그리고 300 그루의 벚꽃도 즐길 수 있습니다. 공원의 근처에는 아라카와 사이클링길도 정비되어 있어 가족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< J R 우라와역 서쪽에서 시키역 동쪽출구행 버스 「사쿠라소공원」하차 바로 , 무료 주차장 있음 >



일본사람과 벚꽃



일본에서는「꽃」이라고 하면「벚꽃」으로 벚꽃은 특별한 꽃입니다.

꽃이 피고 진 다음에 잎이 나오고 , 필때는 연분홍색으로 물드는 왕벚나무는 제일 인기가 있는 종류입니다. 매년 봄이 가까워지면 각지의 벚꽃 개화날이 발표됩니다. 많은 일본사람들이 벚꽃으로 계절을 느끼고 벚꽃 개화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립니다.



제 12 회 사이타마시 외국인의 일본어 연설 대회 ~사이타마에 와서· 보고· 느끼고~

주제 : 「나에게 있어서의 귀중한 것」

사이타마시내에 살고 있거나 직장이 있거나 또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에 의한 일본어 스피치 대회를 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? 많은 분들의 참가를 기다리겠습니다.

일시 2014 년 2 월 8 일 (토) 13 : 00 ~ 16 : 00

장소 우라와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 (코무나레 10 층)

【발행원】 공익사단법인 사이타마관광국제협회 (STIB) 국제교류센터

장소 : 사이타마시 우라와쿠 히가시타카사고쵸 11-1 코무나레 9 층

TEL : 048-813-8500 FAX:048-887-1505

E-mail : iec@stib.jp URL : http://www.stib.jp/kokusai